



Michael Bradburn-Ruster 박사의 리뷰

<문>은 상상력의 향연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볼거리 그 이상입니다. 발레, 오페라, 음악, 시의 예술을 결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식들을 영혼의 여정을 담은 만화경 같은 우화로 녹여냅니다. 점점 기계적이고 기능적이며 양적으로 변해가는 삶의 방식을 초월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메마름은 경이로움과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달》의 목표는 진정한 매혹입니다.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우리 자신, 타인, 지구, 그리고 영혼과의 연결에 대한 우아한 비전을 되찾는 것입니다. 폴 엘뤼아르의 유명한 시구가 떠오릅니다. "다른 세상이 있지만, 그것은 이 세상 안에 있다."

이 작품은 모든 인간이 지닌 원형, 즉 영혼의 여러 면과 우리가 살아가는 역할을 탐구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모두 현명하면서도 어리석고, 순진하면서도 냉정하며, 은둔자이면서도 연인이며, 여걸이면서도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중독자의 끝없는 갈증인가, 현자의 고요한 포기인가, 아니면 이 둘이 번갈아가며인가?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를 정의하는가... 아니면 우리를 가두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보호하거나 함정에 빠뜨리고, 짐을 지우거나 도전하며, 달래거나 속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해방을 충만함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로민의 작품은 채신이라는 선물을 선사하며, 경제, 갈등, 그리고 계산으로 너무나 쉽게 축소되는 세상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분열된 지구 환경 속에서 문은 슬픔이나 상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음의 정원을 노래하고 치유의 오아시스를 펼쳐 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작품은 우리를 그저 "꿈꾸는" 데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포기할 수 없는 신비를 체현하도록 촉구합니다.

달은 평범한 것의 표면 아래에 숨어 있는 보편적인 마법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마이클 브래드번-러스터 박사
(UC 버클리 박사 | 작가, 시인, 학자)

